



광주서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재개 2020년도 양궁국가대표 선발전이 17일 광주시 남구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렸다. 대한양궁협회는 코로나19 사태 뒤 열리는 첫 양궁 대회인 만큼 취재진은 물론 외부 인원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사대 간격을 3m로 늘리고, 출전 선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연합뉴스

적으로 만난 복식 파트너 이용대·유연성 맞대결

28일 배드민턴 슈퍼매치 온라인 중계



이용대(왼쪽)와 유연성

세계 최강 배드민턴 남자복식 파트너로 활약한 이용대(요넥스)와 유연성(당진시청)이 적으로 만나 맞대결을 펼친다.

이용대와 유연성은 오는 28일 오후 6~9시 온라인에서 생중계하는 '요넥스 슈퍼매치'에 참가한다.

요넥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드민턴 경기가 전면 중단된 상황을 아쉬워하는 배드민턴 팬들을 달래주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실제 경기는 인천의 한 체육관에서 열리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중 입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네이버TV와 유튜브·페이스북 등 요넥스 공식 SNS 채널에서 경기 실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남자단식, 여자복식, 남자복식 등 총 3경기가 열린다.

남자단식은 손완호(인천국제공항)와 전혁진(요넥스)의 맞대결로 열린다.

여자복식 경기에서는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 김혜린(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세마을금고) 등 현역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룬다.

마지막 남자복식 경기에서는 이용대-김기정(삼성생명)과 유연성-최승규(요넥스)가 맞붙는다.

이용대와 유연성은 국가대표로 시절인 2016년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한 파트너였다. /연합뉴스

LPGA 내달말 재개...태극여전사 출전 시기 고심

7월 31일 드라이브 챔피언십 개막
자가격리 기간·영국 대회 개최 변수
박인비·고진영 8월 이후 복귀 예상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7월 말 재개할 예정인 가운데 '투어 최강'인 한국 선수들이 대회 출전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LPGA 투어는 올해 2월 호주오픈을 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넉 달째 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LPGA 투어는 "7월 31일 개막하는 드라이브 챔피언십으로 2020시즌 일정을 재개한다"고 16일

(한국시간) 발표했다.
약 5개월 만에 투어 일정이 재개되는 셈이다.
드라이브 챔피언십 다음으로는 8월 6일부터 나흘간 마라톤 클래식이 열리고 이후 무대를 영국으로 옮겨 스코틀랜드오픈과 브리티시오픈이 2주 연속 펼쳐진다.

다만 두 개의 영국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선수들의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돼야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일정으로는 마라톤 클래식이 8월 9일에 끝나고 스코틀랜드오픈이 13일, 브리티시오픈은 20일 개막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2주를 차 채워야 한다면 마라톤 클래식에 출전

한 선수들은 영국 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된다.
영국 대회의 개최 여부는 이달 말 정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골프 여제' 박인비(32)와 현재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5)은 투어 일정 재개를 알리는 신설 대회 드라이브 챔피언십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두 선수의 후원사인 제주삼다수가 타이틀스폰서를 맡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가 LPGA 투어 드라이브 챔피언십과 같은 기간에 제주에서도 열리기 때문이다.

고진영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세마스스포츠마케팅과 박인비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브라보엔뉴는 나란히 "이후 8월 일정은 LPGA 투어 영국 대회 개

최 여부 등에 따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현(27)과 유소연(30), 이정은(24) 등도 LPGA 투어 복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LPGA 투어는 재개 후 2개 대회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고, 이후 2주간은 영국 대회 일정으로 되어 있으며 8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다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여자 골프 관계자는 "LPGA 투어가 선수들의 입국 시 자가격리 기간을 축소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LPGA 투어의 재개 일정이 어젯밤에 발표된 데다 자가격리 기간과 영국 대회 개최 여부 등의 변수가 정해져야 선수들도 정확한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힘내세요" 김창중 광주시체육회장과 체육회 간부 등이 16일 빛고을체육관에서 훈련 중인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을 방문해 격려했다. 시체육회는 앞서 남구청 소속 레슬링 선수단, 펜싱팀(풍암고, 호남대, 서구청) 등을 찾아 선수들과 지도자를 만나 선전을 당부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50세 동갑내기 골퍼의 엇갈린 행보

필 미컬슨 PGA 잔류...짐 퓨릭 시니어투어 진출

미국프로골프(PGA)투어의 만 50세 동갑내기 필 미컬슨(미국)과 짐 퓨릭(미국)의 행보가 엇갈린다.

미컬슨은 17일(한국시간) 50번째 생일을 맞았다. 미국 날짜로는 16일이다.

PGA투어 선수는 만 50세가 되면 PGA 시니어투어 출전 자격을 얻는다.

마음만 먹으면 미컬슨은 8월 1일(한국시간)부터 재개되는 이번 시즌 시니어투어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미컬슨은 시니어투어 진출은 먼 훗날 얘기라는 태도다.

지난 1월 새해를 맞았을 때 미컬슨은 "PGA투어에서 통할만큼 장타를 치지 못하면 시니어투어로 가겠지만,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장타를 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히려 미컬슨의 관심사는 PGA투어에서 우승 트로피를 보려는 것이다.

그는 47세이던 2018년 멕시코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49세를 앞둔 작년에도 AT&T 페블비치 프로암을 제패했다.

PGA투어에서 50세가 넘어서 우승한 선수는 지금까지 샘 스니드, 크레이그 스태들러, 프레드 핑크, 존 바넘, 제임스 반스, 데이비스 러브 3세, 아트 윌 주니어 등 7명뿐이다.

8번째로 50세를 넘긴 챔피언을 노리는 미컬슨은 아예 스니드가 가진 최고령 우승(52세)까지 노릴 만큼 자신감에 넘친다.

PGA투어에서 경쟁하는 후배들도 미컬슨이 50세가 넘어도 얼마든지 우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타력과 아이언샷, 쇼트게임, 퍼트 등 모든 분

야 경기력이 투어 최상급이고 철저한 자기 관리와 훈련으로 기량이 후퇴하기는커녕 발전하고 있다고 선수들은 입을 모은다.

미컬슨에 앞서 지난 13일 만 50세가 된 퓨릭은 올해부터 시니어투어 대회에 나서기로 했다.

PGA투어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에 이어 RBC 헤리티지에도 출전하는 퓨릭은 PGA투어와 시니어투어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플레이오프 전까지는 PGA투어에 전념하겠지만, 시니어투어 대회도 두어차례 출전할 생각"이라면서 "시니어투어에서 1년을 보낼 때가 곧 올 것이고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골프위크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장타를 치지는 못하지만 정교한 아이언샷과 영리한 경기 운영이 돋보이는 퓨릭은 PGA투어에서 통산 17승을 올렸고 PGA투어에서 유일하게 18홀 58타라는 신기원을 세웠다.

미컬슨, 퓨릭과 1970년생 동갑인 최경주(50)도 올해 시니어투어에 데뷔한다.

1969년 10월생인 어니 엘스(남아공)는 올해 1월 시니어투어에 데뷔해 지난 3월 호그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신고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결백
2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언더워터
3관	사라진 시간, 위대한 쇼맨, 아이 캔 온리 이매진, 8인: 최후의 결사단
4관	사라진 시간
5관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에어로너츠
9관	결백
7관 씨네커틀	사라진 시간, 아구소녀, 열혈형사
8관 씨네커틀	침입자, 열혈형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 11시 음악산책
김선아의 유월의 소나타
2020. 6. 26.(금)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포커스4
판소리 1인극 <방탄철가방>
2020. 7. 3.(금) ~ 4.(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GAC기획공연 - 4SEASON
소리꾼 이지람 <노인과 바다>
2020. 7. 25.(토) ~ 26.(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